

5·18 '초긴장'

'쇠고기 파동' 집회 맞물려 기념식 폭력사태 우려

광주 온 어청수 경찰청장 "불법 엄정 대처"



14일 광주를 방문한 어청수 경찰청장이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행사를 앞두고 전국 노동자·대학생·농민단체 등의 5·18 민주묘지 참배와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청수 경찰청장이 5·18 기념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5·18 단체와 시민들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반도 대운하 등 정부 실정에 대해 민심이 불끓고 있어 올 5·18 행사가 자칫 불법시위와 폭력사태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4일 광주를 방문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2003년 5·18 기념행사에 앞서 한총련 등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이를 감안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며 "집회·시위가 불법행위로 변질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어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5·18 28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 등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한 뒤, "5·18 행사가 경건하고 엄숙하게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경계태세에도 민주노총과 한총련·농민회 등은

애초 예정대로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전후에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각계 단체가 광주시 동구 급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는 국민대회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미FTA·한반도 대운하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5월 선언'을 선포할 예정이어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5월 어머니회와 5·18 부상자회 등 일부 5·18 단체들은 오는 17일과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 동광주 IC~청옥동 삼거리~국립 5·18 민주묘지 구간까지 미리 집회 신고를 해놓고 다른 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막았다.

윤광장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행사가 사회적현안과 맞물려 치러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시국·공안과 관련된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5·18 기념식이 열리는 날 5·18 묘지 주변에 대규모 경찰을 배치해 시위나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초경인사 외에는 묘지 출입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경비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12일 국립 5·18 민주묘지 내 추모관 2층. 아빠와 함께 민주묘지를 찾는 남매가 쪽지에 5월의 희망 메시지를 적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월의 희망으로 세상을 밝혀주세요"

5·18 묘지 추모관에 쪽지 3천여개 붙어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5월의 희망으로 세상을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5·18과 관련된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담은 3천여개의 메시지를 추모관 한 칸에 붙였다.

가로 5m, 세로 2m의 직사각형의 작은 공간에 마련된 '희망 쪽지' 코너에는 민주·인권·평화를 바라는 추모객들의 희망과 염원이 빼곡히 담겨져 있다.

이 코너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5·18 민주항쟁 제28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조성됐다. 13일 현재 3천여명의 추모객들이 정사각형 모양의 빨강·노랑·파랑·녹색쪽지(가로 7cm, 세로 7cm)에 메시지를 적어 작은 공간에 정성스럽게 붙였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대는 다양해도 이들의 희망은 한결 같았다. '5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진실이 왜곡될 때입니다. 훗날 역사에서 당신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후손들에게 비추어지길' '무명영사의 넋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5월 정신이

되새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영원하길' 등이다.

5월의 참 뜻을 알려줘 고맙다는 메시지도 눈에 띈다. '5월 영상을 보고 너무 울었어요. 우리가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껏 5·18 민주항쟁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역사를 잊고 살아왔음을 깊이 뉘우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탄생 과정을 뒤늦게 보고 갑니다' 등도 있었다.

추모관을 찾은 박영우(39·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는 "5월 영령들의 넋이 하늘에서 편히 쉬 수 있도록 추모객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506)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착각 및 사망예방**

▶ 사물보시 : 02) 3445-0943
▶ 사무총괄 : 061) 337-0571

10대들이 성관계 유인 강도짓

○인터뷰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자며 남성들을 유인해 구타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녀 11명이 경찰에 들렸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P(17)양과 J(19)군 등 10대 남녀 11명은 지난 3월 밤 11시께 인터넷 채팅 상대인 G(39)씨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모델로 유인한 뒤 집단폭행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P·양은 남성과 함께 모델에 들어간 후 샤워를 핑계로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로 J군 등에게 위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들이 기다리던 모델에 이들과 함께 들어가는 수법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는 것.

○경찰은 "남성들을 유인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하면 성매매 사실을 말해 버린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허를 찌른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살인 미수 혐의 배심원·재판부 모두 무죄

광주지법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상해죄로 징유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로 목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흥기 상해죄를 직권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배원원 부장판사)는 14일 이웃 주민을 흥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고, 직권 유죄를 진정해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흥기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범위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 작은 공소사실이 포함된다는 '축소된 범죄 사실 인정'이 적용된 셈이다.

김씨는 지난 3월 1일 밤 10시 10분께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웃인 허모(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로 목을 찔러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 김씨의 살해의도 여부에 모아졌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흥기로 찔렀는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겁을 주기 위해 흥기를 휘둘렀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들은 1시간여 동안 비공개 평의를 갖고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렁이 단팔뻥' 자작극 결론

50대 공갈 미수 영장

'지렁이 단팔뻥' 사건을 수사해 온 광주북부경찰은 14일 "뻥 속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며 (주)S식품에 돈을 요구한 김모(54)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의 신발가게에서 일한 인부 송모(38)씨를 부추겨 지렁이가 든 단팔뻥을 신고 제보한 뒤 S식품 관계자를 만나 제보 반복을 대가로 금품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송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입건 대상에서 제외

했다.

또 김씨 등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 기조사와 대질신문을 했으나 자작극 의혹을 뒷받침해 줄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와 S식품 측 중 어느 쪽이 먼저 금품 제공을 제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녹취 테이프 음성을 재생했지만 이를 명확히 가려내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송씨가 지난 3월 24일 S식품 단팔뻥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며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진술을 번복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임대료 일방적인 인상 입주자 수용 의무 없어"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입주자가 인상분을 내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이정열 판사는 지난 14일 임대아파트 사업주인 A 건설사가 입주자 정모(35)씨와 강모(여·35)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을 뿐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의무까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세종투어
062) 222-2209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세종투어 여행상품을 우리V카드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혜택

할부유 최소 10만원부터

신차금융상품

신차금융상품

새로운 투어를 소개합니다

1. Welcome 1 - ₩100,000 - ₩200,000

2. Welcome 2 - ₩200,000 - ₩320,000

3. Welcome 3 - ₩300,000 - ₩230,000

가족여행 [4인 기준]

₩150,000

₩100,000

장사/장가계속

₩100,000 - ₩199,000

₩200,000 - ₩319,000

가족여행 2박3일

₩280,000 - ₩140,000

₩200,000 - ₩99,000

장사/장가계속

₩100,000 - ₩534,000

₩200,000 - ₩504,000

장사/장가계속

₩800,000 - ₩470,000